한국작가회의 회보

Writers Association of korea 2018 통권 113호
http://hanjak.or.kr



한국작가회의 회보 통권 113호
발행인 이경자 **편집위원** 김서령(위원장) 권민경 정미영 최예지 고은규(편집장)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발행처** (사)한국작가회의 03965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마포중앙도서관) 5층
전화 02)313-1486 **전송** 02)2676-1488 **제작** 해든디앤피

걷는사람 시인선 시리즈 발간

시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견고히 쌓아가는
시인들의 시선



걷는사람 시인선 1
해자네 점집 | 김해자
값 9,000원

걷는사람 시인선 2
나의 하염없는 바깥 | 송주성
값 9,000원

"좋은 시인들과 시를 발굴하고 그로써 오늘날 우리 문학장이 간과하고 있는 가치를 일깨우는 것. 지금, 걷는사람 시인선이 시작되었다."

⋯› 걷는사람 이메일로 시집 투고를 받습니다.

도서출판 걷는사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54. 104-1512
T 031-901-2602 F 031-901-2604
E walker2017@naver.com
B http://blog.naver.com/walker2017

차례

한국작가회의 회보 2018 통권 113호

04 • 제주 4·3기획 제주작가회의와 4·3문학제 – 이종형
06 • 열린공간
08 • 김주대의 문인화 – 신현수 시인
09 • 에세이 제망매가, 부르지 않고 – 최광임
10 • 시 이마 – 문동만
11 • 시 아무런 이유 없이 – 김경훈
12 • 소설 행운과 소녀 – 박문구
14 • 포토에세이 – 김이하
16 • 동화 일회용 물티슈 같은 사랑 – 박혜선
17 • 동시 외눈바위 – 이안
18 • 작가회의 소식
20 • 나의 첫 책 시집『어떤 인연』– 양곡
21 • 내 친구의 가게를 소개합니다 순분여사와 소희네 가게 – 고희림
22 • 릴레이 추천 모두가 뜨거웠던 〈1987〉 – 주영국
24 • 소설 고양이 울음소리 – 이예훈
26 • 작가가 사랑하는 공간 버스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 이정임
27 • 우리지회 울산 작가회의 – 이수진
28 • 지회지부 소식
30 • 회비 납부 현황 (CMS 특별회비 등)



제주작가회의와 4·3문학제

이종형

제주 4·3을 주제로 한 첫 공식적 문학행사는 1994년 4월 2일 제주시 중앙로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4·3문학의 밤〉이었다.

제주 4·3 46주기에 맞춰 제주민예총 주관의 제1회 4·3예술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제주작가회의의 전신인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현기영 소설가의 〈4·3 항쟁과 문학〉 강연과 시낭송회가 진행되었고,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시집 『아직 다 부르지 못한 4월의 노래』를 출간했다. 제주 4·3문학의 태동이었다.

그 다음 해인 1995년 4월 22일에는 소설가 한림화의 문학 강연 〈여성주의 문학과 역사의 상관관계〉 시낭송회가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등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4·3문학제가 4·3예술제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몇 년간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수시로 몇몇 회원들의 동향을 탐문하고, 광목천에 붓으로 쓴 걸게 시화전의 내용을 문제 삼아 행사를 막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시기이기도 했다.

〈4·3문학제〉가 본격 자리매김된 것은 4·3 50주기를 맞는 1998년부터였다. 같은 해 2월,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가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작가회의)로 공식 창립되면서 4·3문학의 외연은 확장되었고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4·3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발간된 지 만 20년이 지난 1998년 4월에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다섯 번째 〈4·3 문학제〉는 소설가 현기영, 현길언을 초청하여 4·3이라는 역사적 진실 앞에서 '문학은 허구가 통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담론을 나누는 작가와의 대화와, 4·3의 금기를 깬 소설 「순이 삼촌」 이전과 이후의 문학적 전개 양상을 문학평론가 김동윤이 〈4·3의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수용〉이라는 주제로 정리 발표한 문학세미나가 열리는 등 향후 4·3문학이 지향해야 할 문학적 과제에 대한 화두를 공유하는 행사들로 진행되었다.

1998년 이후 4·3문학제는 4·3의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을 함께 아우르기 위한 일련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60주기를 맞는 2008년까지 10년간 계속됐다.

그중 2005년 12회 4·3문학제 행사의 하나로 치러진 14회 전국 문학인 제주대회는 제주 4·3의 전국화, 세계화라는 단초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내외 작가 400여 명이 제주에 모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함께 공유했으며 고발과 저항의 단계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된 것이다.

60주기를 맞아 열린 15회 〈4·3문학제〉에선 일본 오키나와, 대만, 베트남 등의 작가들과 국내작가들이 함께 모여 〈비극을 뛰어넘는 평화와 상생의 도구로써 문학은 유용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문학심포지엄이 열린 것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였다.

20여 년에 걸쳐 제주작가회의는 4·3문학제에 맞춰 『바람처럼 까마귀처럼』, 『곶자왈 바람 속에 묻다』, 『진혼』, 『바람의 비문을 읽다』, 『무너지지 않는 길이 되겠네』, 『4월 꽃비』, 『사월 어깨너머 푸른 저녁』, 『검은 돌 숨비소리』 등의 시집과 희곡집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 평론집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소설선집 『깊은 적막의 끝』, 산문집 『어두운 하늘 아래 펼쳐진 꽃밭』, 『돌아보면 그가 있었네』 등 일련의 창작물과 기록물을 발간하여 국내외 독자들과의 문학적 소통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하지만 4·3문학의 새로운 문학적 모색, 혹은 좌표 찾기의 방식으로써 이 정도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도 내부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1년 18회 〈4·3문학제〉 행사로 열린 문학심포지엄 〈4·3을 뛰어넘는 4·3문학〉은 20년 가까이 지속된 4·3문학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향후 4·3문학의 과제에 대해 솔직 담백하게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초청된 소설가 현기영은 심포지엄 주제가 '4·3을 뛰어넘는 4·3문학'이 아니라 「'순이삼촌'을 뛰어넘는 4·3문학'으로 읽힌다며 제주작가들이 4·3을 소재로 한 문학창작작업을 해나가는데 있어 경직된 사고와 인식 속에 갇힌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내용과 더불어 비극성을 초월하는 새로운 4·3문학 창작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후배작가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제주 4·3에 대한 인식과 제반 사정들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그에 맞춰 작가들도 새로운 상황과 가치를 문학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격려임과 동시에 20년을 맞이한 4·3문학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문학은 항상 앞서나갈 수 있어야 한다. 상식적인 사실을 재확인하는 작품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언론이 아직 추적하여 밝혀내지 못하거나 역사가 미처 정리하여 기술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학이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 기자나 학자보다 앞서서 짚어 내거나 혹은 기자나 학자와 달리 말할 때라야 4·3문학은 존재 의미가 있다. 4·3을 소재로만 삼아도 주목하던 시대는 벌써 오래전에 끝났다.' 김동윤, 「2000년대 4·3문학의 점검」, 계간 『제주작가』 33호(도서출판 심지2011) 25쪽.

4·3문학 2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제주작가들이 천착해나가야 할 4·3문학의 과제이며 지향점이 저 몇 줄의 문장 속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주 4·3항쟁 70주년 기념 〈전국문학인제주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문학을 하는 우리에게 전국 각 지역의 역사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오롯이 승화시켜 형상화하고 문학에 담아낼 수 있는 내일의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는 만남의 장, 논의의 한마당이 되었다.

대회 기간 중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다 함께 지켜보면서 한반도에 가득한 평화의 기운, 통일문학의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전망할 수 있었던 4월의 제주. 〈4·3문학제〉는 오랫동안 제주작가들을 단련시킨 문학적 도구이자 구심체로써 앞으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을 피워 올릴 것이다.

이종형
2004년 『제주작가』 신인상. 시집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 2018 〈5·18문학상〉 수상. 현 제주작가회의 지회장.



❶ 제주작가회의



❷ 이종형 제주지회장



❸ 김동현 문학평론가, 홍경희 제주 사무국장



❹ 이경자 이사장, 손세실리아 시인



❺ 문화예술공연, 꽃다지



❻ 놀이패 한라산과 산오락회



❼ 이경자 이사장



❽ 김성주 제주시인



❾ 기조강연 현기영 소설가



❿ 국제문학심포지엄 발표 및 토론



⓫ 해외작가 메도루마슌(일본)





⓬ 기조강연 한림화 소설가



⓭ 식수기념 단체사진



김주대

1989년 『민중시』, 1991년 『창작과비평』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도화동 사십계단』 『그대가 정말 이별을 원한다면 이토록 오래 수화기를 붙들고 울리가 없다』 『꽃이 너를 지운다』 『나쁜, 사랑을 하다』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이 있다. 1991년 심산문학상, 2013년 성균문학상을 수상했다.

신현수

계간지 「시와 의식」(1985년 봄호)에 '서산 가는 길' 등 5편이 박희선, 김규동 시인에게 추천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서산가는 길』 『처음처럼』 『이미혜』 『군자산의 약속』 『시간은 사랑이 지나가게 만든다더니』 『인천에 살기 위하여』시전집으로 『신현수 시집(1989–2004)』(상, 하), 시선집으로 『나는 좌파가 아니다』 등이 있으며, 저서로 『선생님과 함께 읽는 한용운』 『시로 만나는 한국현대사』 『시로 쓰는 한국근대사』 『시로 쓰는 한국근대사 2』 등이 있다.



제망매가, 부르지 않고

최광임

살아서 나를 떠난 애아빠는 죽은 지 1년 지나 제삿날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펄펄 살아있던 오빠는 홀연히 죽어서 내 곁을 떠났다. 헤어진 지 15년이 넘은 애아빠의 죽음을 비우기 위해 첫 제사를 지낸 다음날 나는 봇짐을 꾸렸다. 겨울 동안 삼천포 바닷가 달방에 들어앉았다. 비로소 그와의 한 생을 맺음 하였으므로 그간의 애환 풀어내 더는 원망도 슬픔도 없게 되기를 비손했다.

그러나 하나를 채 비우기도 전에 오빠의 암 판정 소식이 전해졌다. 삶은 결코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 밖에서 형성되는 것이 맞다. 불가항력의 내 의지 밖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불안해했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오빠의 사인은 수술 회복기에 있던 암이 아니라 혈압 상승으로 인한 돌연사, 향년 56세였다.

오빠는 나보다 4살 위다. 3대 독자인 덕에 4개월 공익근무로 군복무를 마쳤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D그룹 공채로 입사하였다. 오빠 나이 23살에 사회인이 되었고 룸펜이었던 아버지 대신 가장이 되었다. 나를 대학에 보내주고 시집을 보내줬으며 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줬다. 내가 노후에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하겠다고 고향의 빈집을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단 한 번 의도한 바 없지만 나는 평생 오빠의 짐이 되어 있었다.

내가 중학교 졸업을 앞둔 때였다. 스무 살 오빠는 방학이 되자 아버지가 깎아 놓으신 곶감 수백 접을 들쳐 메고 나간 지 보름만에야 돌아왔다. 봇짐 속엔 내게 줄 손목시계와 겨울 외투, 오빠의 구멍 난 양말과 옷가지 등속뿐이었다. 나는 난생처음 손목시계를 차고 멋진 코트를 입고 졸업식장에 갈 수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야 알았다. 겨우내 생앓이를 하던 오빠 엄지발톱이 빠졌다는 것을. 감나무가 적은 바닷가 마을로만 걸었다고 했다. 대학생 과외가 전면 금지된 5공 시절이기도 했지만 오빠가 곶감 장사를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땀의 가치를 알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겨울 우리 집에 현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버지가 깎아 놓은 곶감뿐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효자였던 오빠는 나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에게도 대차고 서슴없었다.

"아버지와 저 둘 중 누가 더 쟈를 오래 봅니까? 전문대학이라도 나와야 그만한 데 시집보낼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제가 잊어버리고 살 거 아닙니까? 사네 못하네 하면 아버지 대신 제가 평생 신경 써야잖아요. 저 편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늦둥이인 나를 끔찍이 예뻐하셨으나 3대 독자 오빠와는 비교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빠가 행정고시를 봐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신념이었다. 실지로 1차 시험에서 3문제를 틀린 적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내가 취직을 해야만 하는 이유였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었고 아버지는 나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견딜 수 없는 어느 날 오빠가 뒷간에 있는 농약을 바가지에 부어들고 왔다. 셋이 먹고 죽자고 엄포를 놓았다. 오빠의 서슬에 놀란 아버지의 다짐을 받아내고서야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 뒤로도 나는 아버지를 피해 한 해 동안 네 번의 자취방을 옮겨 다닌 후에야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아버지의 편협과 불합리함 그리고 오빠의 사랑 사이에서 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남들에겐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이 내겐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인지 슬프고도 슬펐지만 '오빠'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뒷심이 생겼다.

지난 3월 26일 이후, 내 생의 그 기둥이 무너졌다. 오빠이면서 아빠였고 내 우상이었던 오라비를 잃고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 혈압이 약 처방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이다. 어떤 지경에 오면 슬픔도 감각되지 않는다. 몸만이 정직하다. 가만히 되뇐다. 나는 오빠의 파산으로 생이 무너진 나혜석은 아니므로, 개화기보다는 나은 시대이므로 살아 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 수 있다.

최광임

전북 부안 변산 출생. 2002년 《시문학》으로 등단. 시집 『도요새 요리』 외 디카시 해설집 『세상에 하나뿐인 디카시』. 《시와경계》 편집인, 《디카시》 주간. 두원공대 겸임교수.



이마

문동만

사위어가는 목숨의 이마 위에 손을 얹을 때
마지막 따뜻함이 끝나면 최초의
차가움이 되어서 떠나리
당신은 이제 집도 식구도 설움도 없는
한낱 투명이 되리 왜 공허는 천 개의 형상인가
당신은 잘 우는 습성만 물려주고
차가워졌네

나는 막바지의 숨을 여러 번 봤네
세상은 병상이었고 탈상이었네
산으로 쫓겨난 사람들도, 물에 잠겨 살지도 못한
사람들도 핏줄이었네
작디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뉘여보면 그것이 역사라고
당신들의 이마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그것이 평전이라고

모든 사람은 업혀서 키워졌고 업혀서 사라지네
산밭을 헤집던 칠십 년 전 여자의 아우성과
포대기 속 아기 울음도 사라지네
누구나 사라지지만
오, 일찍 쓰러진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네

물을 적셔 당신의 이마를 닦고
머리칼을 넘길 때
이마 한번 만져주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앞서 눈을 감고 있네
피멍 진 얼굴로 눈을 뜨고 있네

당신의 마지막 이마를 짚을 때
누군가의 누구나의
더 서러운 이마도 내 손을 잡아당겼네

– 4·3 시 모음집 『검은 돌 숨비소리』 (걷는사람 2018) 수록

문동만

1994년 『삶 사회 그리고 문학』 창간호에 작품 발표. 시집으로 『그네』와 근간으로 『구르는 잠』 등이 있음.



아무런 이유 없이

김경훈

많은 사람들이
제주 4·3에서 무수한 제주도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갔다고 말한다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4·3의 겨울은
최고조에 이른 열정을 끄기 위한
그 몇 배 분량의 극한의 공포와 탄압

이것은 사유하는 세포 자체의 파괴
그래서 제주 4·3은 죽음만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진실을 말하자

제주 4·3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다

– 4·3 시 모음집 『검은 돌 숨비소리』 (걷는사람 2018) 수록

김경훈

1962년 제주 출생. 1992년 『통일문학통일예술』 창간호 등단.
시집 『운동부족』 『우아한 막창』 『삼돌이네집』 제주 4·3 시집 『고운 아이 다 죽고』 『눈물 밥 한숨 잉걸』 『한라산의 겨울』 일본어판 제주 4·3시집 『不服從の 漢拏山』. 마당극 대본집 『살짜기 옵서예』 『소옥의 노래』 제주 4·3 라디오 시나리오집 『10부작 한라산』 산문집 『낭푼밥 공동체』 등 다수의 저서.



행운과 소녀

박문구

김 과장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만난 날은 더운 여름밤 토요일이었다.

해변도로 중간쯤 공터에 시에서 조성한 멋진 조각공원과 그 옆에 아치형 지붕을 한 작은 공연장이 있었다. 그날 그곳에서는 한여름 피서객들을 위해 이곳 소도시의 악단이 공연하고 있었다. 김 과장이 한낮의 더위에 찌든 몸을 풀기 위해 저녁을 먹은 후 바로 이곳에 왔을 때 공연은 이미 초반부를 넘기고 있었다. 부드러운 발라드 혹은 귀에 익숙한 가곡과 세미클래식은 잔잔히 일렁거리는 파도소리와 어울려 밤의 정취 속으로 흘러들었다. 청중들은 꽤 많은 편이었다. 김 과장은 얼음 탄 커피를 마시며 가파른 벼랑을 막은 난간에 기대어 연주를 들으면서 바닷가의 시원에 잠겼다.

몇 곡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사회자는 짧은 멘트로, 오늘 연주가 끝나면 경품 추첨이 있을 것이니 청중들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삼행시 지을 용지를 갖고 가라고 알렸다. 삼행시 심사는 지역 시인들이 해주실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용지를 받아갔다. 김 과장도 참가할까 하다가 멋쩍어 그만두고 경품을 살폈다. 악단 옆에 경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고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자전거도 한 대 있었다. 오늘 경품의 메인은 저 자전거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경품이 있고 없고는 마지막까지 청중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 경품이 없으면 무슨 행사이건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이번 행사를 하면서 청중에 대한 서비스 차원과 끝까지 많은 청중을 원하는 집행부의 의도로 경품 행사를 계획한 모양이었다.

김 과장은 정성으로 연주하는 단원들의 진지함을 보면서 끝까지 남아 있기로 했다. 또 이곳을 떠나봤자 다른 할 일도 없는 밤이었다. 그때 그 소녀를 보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까. 하얀 피부에 짧은 치마와 시원한 민소매를 걸치고 긴 머리칼은 뒤로 묶어 매우 단정해 보이는 소녀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삼행시 용지를 타간 후였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용지함을 큰 박스에 넣어버린 참이라 제일 늦게 쭈뼛쭈뼛 앞으로 나가는 소녀의 발걸음은 몹시 수줍음을 타는 듯 보였다. 집행부 중 한 사람이 소녀와 짧은 말을 주고받았고, 박스 속에서 한 장의 용지를 소녀에게 건넸다. 받자마자 소녀는 치마를 나풀거리며 청중석으로 돌아갔다. 청중석은 어두워서 삼행시를 쓰기에 적당하지 않았으리라. 소녀가 그곳을 빠져나와 밝은 불빛이 있는 김 과장 곁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오자 곧 젊은 부인이 소녀와 같이 앉았다. 소녀의 엄마였다. 모녀는 밝은 불빛 아래에서 한참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삼행시를 채워나갔다. 김 과장은 가벼운 흥미를 느꼈다. 저 소녀의 삼행시가 선자들의 눈에 띌 것인가. 안 보는 척 계속 모녀를 살피다가 커피를 마시고 남은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오니 모녀는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김 과장은 청중들 뒤 조각상에 기대어 결과를 기다렸다.

연주가 끝나자 입선부터 차례로 등수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입선은 다섯, 가작 넷, 3등 셋, 2등 둘, 드디어 최고 경품이었다. 한참 실없는 멘트를 날리던 사회자가 최종 1등을 발표했다.

"오늘의 메인 상품을 타실 분입니다. 행운의 이분은 김수미, 김수미 씨."

그러나 청중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사회자가 다시 당첨자를 호명하자 청중 뒤편에 서 있는 '바이올린 켜는 여인상' 밑에서 그 소녀가 엄마와 함께 천천히 나왔다. 자전거 경품은 소녀의 것이었다. 소녀는 엄마와 함께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자전거를 자랑스럽게 끌고 바이올린 여인상 곁으로 돌아왔다. 얼굴에는 작은 기쁨과 수줍음이 흘렀다. 김 과장이 조용히, '자전거를 탔네. 축하해요!'하고 인사를 건네자 소녀와 엄마는 다시 수줍어했다. 김 과장은 그 모습을 휴대폰에 담았다. 어두운 바다를 배경으로 기쁨과 수줍음이 교차하는 소녀와 늠름한 자전거!

집으로 돌아오면서 김 과장은 소녀의 천진한 모습을 그리다가 점차 흐릿한 옛일을 떠올렸다. 아들의 울먹이는 모습이었다. 벌써 십 년도 더 지난 일.

아들이 아침밥을 몇 술 뜨는 척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자전거 타러 가자아!"

대뜸 밥상을 벗어나서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삼일절 기념식 겸 자전거 타기 대회가 끝나면 자전거 경품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김 과장이었다. 당첨된 새 자전거를 끌고 자랑스럽게 집으로 와서 식구들에게 자랑자랑할 아들의 단순하고도 어린이다운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생각이 걸렸다. 경품에 잠겨 있는 어두운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어른들이라면 경품에 뽑히지 않아도 별문제 없는 일이지만, 아침밥도 채 먹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행사장으로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아들의 마음속을 짐작하자 그대로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행사장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김 과장의 마음은 어둡고 불안했다.

행사장은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는데 벌써 자전거 달리기 행사는 끝나고 연설대 주변에서 경품 추첨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 과장은 아들을 찾으려 돌아다녔으나 보이지 않았다. 어른들 틈에 끼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으리라. 사람들 뒤 층계에 올라가서 연설대를 중심으로 넓게 둘러선 많은 사람들을 살폈다. 자전거는 대략 스무 대 가량. 연설대 중앙에 추첨번호가 담긴 투명한 함이 있었고 진행자 두 사람이 번갈아 번호표를 집어내어 발표했다. 그럴 때마다 당첨된 사람은 만면에 기쁨과 쑥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와서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

"그때 김 과장은 아들을 봤다. 경품 자전거가 일렬로 세워져 있는 바로 앞에서 아들은 안절부절못하며 발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상체도 심하게 흔들렸다. 잠시 후 그보다 더 기막힌 모습. 아들이 손으로 남아 있는 경품 자전거를 세기 시작하는. 얼핏 봐도 대여섯 대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김 과장은 차마 아들을 볼 수가 없었다. 층계에서 내려와 운동장 한구석으로 가서 담배를 피웠다. 거의 한 대 다 피울 무렵, 아마 경품은 마지막 두어 대 남았을까. 모여 선 어른들 사이를 뚫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심하게 비틀면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김 과장이 아들을 부르며 다가가자 녀석은 아빠를 확인한 후 와락 울음을 터트리며 김 과장 허리를 껴안았다. 순간 알았다. 마지막 두어 대 가량 남았을 때 녀석은, 저 자전거는 자신에게 차례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마지막 한 대까지 차마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빠져나온 아들의 마음을.

김 과장은 운동장을 빠져나오며 아들을 다독거렸다.

"경품 추첨은 천박한 사람들이 만든 거란다. 원래 저런 곳은 가지 말아야 하는 거야. 오늘 큰 사실을 하나 경험했지? 응? 자신의 진정한 노력으로 물건을 얻어야 그게 진짜 뜻깊은 거야. 앞으로는 우리 요행을 바라는 일엔 아예 가까이 가지 말자! 아빠하고 오늘 약속하는 거다!"

녀석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경품과 행운의 관계를 굳이 따질 일은 없다. 분명한 일은 행운이란 연속되는 법이 없다는 단순한 사실. 그러나 기쁨과 수줍음을 탄 저 소녀. 뜻밖의 행운에 잠시 발을 담근 오늘 이후, 앞으로 전개될 삶의 파도에 소녀는 어떤 마음으로 헤쳐 나갈 것인지. 우연히 얻을 행운을 기대했다가 행운에서 멀어졌을 때 소녀의 가냘픈 마음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인적 동원의 부피로만 행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어른들 행태에 울고 웃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김 과장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을 수 없었다. 뒤편에서는 저속에 답답하다는 차량의 클랙슨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소녀의 표정과 아들의 울음이 뒤섞였다.

박문구

강원도 삼척 생. 가톨릭관동대학교 졸업. 197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저서로 단편소설집 『환영이 있는 거리』, 장편소설 『투게더』가 있음.



까마귀야, 까마귀야.
육신은 네가 가졌으니, 이제는 내 혼을 아무 데나 부려주게.
구천을 떠돌던 원혼 이제는 쉬고 싶네.

– 제주4·3 70주년 〈4·3평화공원〉에서



김이하

1959년 전북 진안 출생, 1989년 《동양문학》으로 등단. 시집으로 『내 가슴에서 날아간 UFO』 『타박타박』 『춘정, 火』 『눈물에 금이 갔다』가 있음.



일회용 물티슈 같은 사랑

박혜선

엄마는 지금 시베리아 횡단 중이다. 만약 옆에 있었다면 전쟁이 나도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내가 정훈이에게 차인 이유를 드디어 알았다. 급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채희가 신문을 내밀었다.

"뭔데? 네가 좋아하는 아이돌 나왔어?"

급식판을 들고 가던 정훈이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었다. '그만 만나', 정훈이가 보낸 네 글자까지 같이 씹었다.

"봐봐."

신문을 펼치니 엄마 얼굴이 보였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아."

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깍두기를 씹었다.

"자세히 보라니까."

활짝 웃는 엄마 얼굴을 급식판 위로 들이밀었다.

"뭔데?"

'사랑을 시작하는 딸을 위해'

풉. 입속에서 부서진 무 조각이 분수처럼 흩어졌다. 채희가 얼굴을 훔치며 내 등짝을 후려쳤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나는 입속에 남은 것을 꿀꺽 삼키고는 채희를 끌고 급식실을 나왔다.

"야, 나 아직 밥도 못 먹었다고."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다. 보건실 뒤 화단에는 코스모스가 작은 꽃망울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화단에 엉덩이를 걸치고 기사를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눈이 뻑뻑해졌다.

"정훈이도 읽었어?"

"정훈이가 준 거야."

아, 짧은 신음이 나왔다. 엄마를 믿는 게 아니었다.

"엄마도 짝사랑 해봤구나."

"그럼. 짝사랑이 왜 좋은 줄 아니?"

"……."

"상상한 대로 다 되거든. 짝사랑도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부족하면 사랑도 못해."

내가 엄마에게 한 말이 신문 위에 활자로 박혀있었다.

그 짝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는데 사귄 지 6일 되는 날 차였다. 으악, 그 이유가 이거였다니. 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다.

어떻게 딸에게 찾아온 사랑을 자기 글의 소재로 쓸 수 있을까? 난 엄마의 딸이 아니라 엄마의 글 속에 나오는 나무나, 쓰레기통, 혹은 신발장 같은 소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렵게 털어놓은 내 마음을 일회용 물티슈처럼 쉽게 쓰고 버릴 수 있을까?

당장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다. 어차피 엄만 전화를 끊자마자 내가 쏟아낸 말들은 물티슈로 쓱 닦아버리고 낯선 시베리아 풍경에 감탄사를 날리고 있을 거니까.

박혜선

미루나무를 좋아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말 걸기를 좋아하는 작가는 아이 같은 어른으로 살고 싶어 아동청소년 문학에 빠져 지낸다. 동시, 동화, 그림책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동시집 『개구리 동네 게시판』 『텔레비전은 무죄』 『위풍당당 박한별』 『백수 삼촌을 부탁해요』 『쓰레기통 잠들다』 등과 동화집 『저를 찾지 마세요』 『신발이 열리는 나무』 등이 있다.



외눈바위

이안

네발나비가 나풀나풀 날아와 바위에 앉았어
접었던 날개를 펴자
반짝!
바위가 눈을 뜨지 뭐니

바위는 이때 나비가 본 모든 것을 본 거야
그렇게 딱 한 번 본 것을
오래 맛보느라
바위는 오늘도 눈을 감고 있는 거지

– 『글자동물원』(문학동네 2015) 수록

이안

1999년 『실천문학』 등단. 시집 『목마른 우물의 날들』 『치워라, 꽃!』, 동시집 『고양이와 통한 날』 『고양이의 탄생』 『글자동물원』, 평론집 『다 같이 돌자 동시 한 바퀴』를 냈다.

작가회의 소식 (3, 4월)

사무처 3, 4월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 3월

5일 마포중앙도서관 관장 미팅 (참석: 이경자 이사장, 한창훈 사무총장, 안현미 사무처장)
7일 1분기 정례이사회 자료집 제작
8일 72호 『내일을여는작가』 발송
사무처, 젊은작가포럼 이사와의 대담
9일 『내일을여는작가』 편집위원회 회의 (마포중앙도서관 5층 다목적실)
『내일을여는작가』 편집위원회 회의
제주작가대회 참석 안내 메일 발송 (전체 회원 대상)
10일 1분기 정례이사회 개최 (오후3시, 마포중앙도서관 5층 문학창작실)
112호 회보 원고 마감
13일 미투운동 건 입장문 발표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15일 1분기 정례이사회 신입회원 환영 인사 메일 발송
16일 1분기 정례이사회 안건 공유 메일 발송 (전체 회원 대상)
19일 총회 공증 서류 보완 요청 (법무법인 세창, 정연미 과장)
20일 등기이사 변경 서류 준비 및 발송
21일 회보편집위원회 회의 (마포중앙도서관 5층 사무처)
23일 『내일을여는작가』 편집위원회 회의 (마포중앙도서관 5층 다목적실)
29일 e-나라도움 교부신청 마감 (『내일을여는작가』 원고료)
112호 회보 발행

● 4월

3일 세월호 참사 4년, 광화문 시민문화제 〈나에게 세월호란〉 참여 독려 메일 발송 (전체 회원 대상)
4일 신임 등기이사 변경 완료
5일 아르코 사업설명회 참석 (안현미 사무처장)
5일 수요낭독공감 초청 메일 발송 (전체 회원 대상)
7일 4·3 국민문화제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참가 (주관: 제주작가회의 / 장소: 광화문 광장)
10일 서울시 문학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12일 『내일을여는작가』 출판사 신고확인증, 잡지사업등록증 변경 신청 (마포구청)
우리은행 미팅 (이체수수료 감면 문의 건)
13일 비영리법인 허가증 갱신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16일 은평구청장 미팅 (참석: 이경자 이사장, 한창훈 총장)
젊은작가포럼 총회 (마포중앙도서관 5층 사무처)
17일 e-나라도움 교육 세미나 참석 (전윤수 사무간사)
18일 수요낭독공감 〈조이의 입술을 열면〉 개최 (주관: 젊은작가포럼 / 작가: 김현, 배수연 시인 / 장소: 광화문 교보문고 배움)
『내일을여는작가』 출판사 신고확인증, 잡지사업등록증 변경 완료 (마포구청)
19일 마포중앙도서관 집필실 입주작가 심사 (참석: 안현미 사무처장)
20일 『내일을여는작가』 편집위원회 회의 (마포중앙도서관 5층 다목적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문학주간〉 회의 참석 (한창훈 사무총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행사 사업 선정 단체 대상 간담회 참석 (김건영 사무차장)

23일 탄생100주년 문인 기념 문학제 기자간담회 참석 (한창훈 사무총장, 젊은작가포럼)
23일 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리뉴얼 (김태형 시인이 맡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4일 제24회 전국고교생백일장 심사위원단 논의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 (한창훈 사무총장, 안현미 사무처장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7~29일 제주 4·3항쟁 70주년 전국문학인 제주대회 참석 (주최, 주관: 제주작가회의)
28일 판문점 선언 지지선언문 발표
30일 마포구청장 미팅 (참석: 이경자 이사장)

● 사무처 단신

* 6월 20일 수요일, 영등포 교보문고 티움에서 수요낭독공감이 열립니다. 김해자, 유용주, 이정록 시인이 함께합니다.
* 6월 23일 토요일, 마포중앙도서관 6층에서 제24회 전국고교생백일장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편물, 전체 메일을 받지 못한 회원은 02)313-1486으로 문의 바랍니다.

● 편집후기

회보편집위원회 고은규

경부선을 탈 때마다 겸손해진다. 매주 목격한 교통사고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속도로 위에서 전복된 승용차를 여러 번 봤다. 그날은 천안에서 동탄ic까지 규정 속도를 지키며 잘 달려가고 있었다. 한참 달리다 보니 멀리 사는 후배에게 모임이 취소된 걸 전달하지 못한 게 생각났다. 바로 전화를 걸어주지 않으면 기차를 탈 것 같았다. 차를 갓길에 세우기가 어려워 내가 할 수 있는 건 siri를 부르는 일.

"siri야!"

경쾌한 여자 목소리가 답했다.

"전 여기 있어요!"

"강윤희한테 전화 해."

"강윤님에게 전화 거는 중!"

뭐? 강윤 말고 강윤희야. 나는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모든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통화하긴 어려웠다. 통화취소버튼을 누른다고 눌렀지만 전화는 연결이 되었고 상대는 뜬금없는 내 전화에 나만큼 당황한 거 같았다. 나는 멋쩍어서 'siri' 의 실수를 낱낱이 고하려다 그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잘 지낸다고 이야기해줬다. 나는 그에게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긴 후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siri를 불렀다.

"와, 너 뭐 하는 애야. 너 때문에 진짜 짜증났어."

siri의 대답은 이랬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회보 일을 맡아 두 번의 회보를 발행하는 중에 종종 siri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결과물을 창출해오던 나에게 협업이란 다소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나 32p의 이 작은 분량의 회보도 별거 아닐 거 같지만 협업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바탕이 돼야 한다.

임기 중 12번의 회보가 발행이 된다. 벌써 2번은 끝났다. 남은 10번의 회보가 발행이 되는 동안 편집위원들과 사무처 식구들과 지역에 계신 사무장님들과의 더 원활한 소통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회보는 16p에서 32p로 꼭 두 배 늘었다. 이전보다 두 배로 지면이 늘었지만 아직도 목마른 부분들이 분명 있다. 그럼에도 부족하나마 '영화 릴레이 추천' 과 '지역 가게 소개' 등의 새로운 꼭지들이 신설이 되었다. 청탁권을 지회장님들에게 넘겨 편집부는 청탁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새로운 꼭지를 만들고 재미난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에는 더더욱 힘쓸 예정이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숨은 고수들의 깊고 따듯한 사연과 유쾌하면서도 사유가 깃든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읽고 싶다.

4월 11일 MBC 신사옥 앞 광장에 모인 작가회의 어린이청소년분과 회원들은 동화작가 김리리의 〈돼지공(은)주〉와 웹드라마 〈반지의 여왕〉의 유사성 의혹을 제시하며 MBC측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 **편집부에서 알립니다.** 112호 13p '부산경북작가회의'를 '부산작가회의'로 바로 잡습니다.



나의 첫 책, 시집『어떤 인연』

양곡

어쩌다가 나는 대학을 동년배들보다 6년이나 늦게 다시 들어가 1학년부터 시작해야 했다. 신입생 환영 백일장이 있었는데, 시제는 '잔디'였다. 나는 '맨 처음에는 어디 이름자마저도 제대로 지녔으랴'로 시작하며 쉽게 써냈다. 장원이었다. 학보에 심사평과 함께 실렸다.

그해 가을이 끝나갈 무렵 지방예술제의 효시인 '제34회 개천예술제'가 열렸다. 지난해부터 대학 · 일반부 백일장은 신인상 제도로 바뀌어 미리 예선을 거쳐야 한다며 습작시 다섯 편을 보내 예심을 통과한 사람들끼리 11월 2일 토요일 날 오전에 창렬사에서 백일장을 하는데 시제가 '사랑'이었다.

오후 세 시쯤에 시청 게시판에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나는 남강 가 장어구이 집에서 낮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결과를 누군가가 보고 와서는 알려주기를 가명으로 써낸 나의 글이 준당선이라고 했다. 당선은 50만원, 준당선은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문단 데뷔를 인정한다고 했다.

대학 1학년에 시인이 된 셈이다. 하지만 대학을 들어설 때 나의 문학 실력은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와 우연히 문학 동아리에 들게 되면서부터 좋은 글을 읽게 되었고 문학을 하는 방법들을 선배들로부터 배우게 되었다. 시인이 되든 소설가가 되든 선배들은 문학을 제대로 하는 방법들에 대해 깊이 천착하고 있었다.

전공이 문학이 아닌 나는 문학에 인생을 매달고 남은 대학생활을 보낼 수가 없었다. 순수 학문만을 고집하며 전공을 선택했기에 주위로부터 철모르는 늦깎이 대학생으로 알려졌다.

졸업장만을 손에 쥔 채 졸업을 하게 되었다. 지방 신춘문예에서 최종 결선 4편에는 올랐으나 내가 지금 생각해도 당선작이 되기에는 부족한 글이었다. 학생시인으로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면서부터 문학을 하는 사람들과는 차츰 멀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지방 문단에서 대학생 시인이었을 뿐, 한낱 백수건달에 직업도 없는 사회 부적응자에 지나지 않았다. 십여 년을 객지로 떠돌며 글이란 글은 잊고 살아야 했다.

상처만을 입은 영혼으로 고향에 다시 들어와 생업에 종사하던 어느 겨울날 아침, 대학에서 시를 가르쳤던 스승께서 찾아와 나에게 다시 시를 써볼 것을 제안했다. 문학모임을 만들어 시를 쓰고 시를 써서 다달이 합평회를 하고 지역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2년 봄, 18년 만에 다시 중앙 문단에 얼굴을 내밀게 되었다. 지금 보아도 잔뜩 주눅이 든 채 마음속에서만 머문 생각들을 웅얼대는 소리들로 가득 채운 글들이다.

지역에서 시를 쓰고 문학을 한다는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난체하는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이제 숙명의 일이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가며 하고 있는 일이란 것이 밥벌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란 것을 붙들고 마치 훈장처럼 철렁이며 시인이란 명패를 달고 다니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예 미친놈이거나 아직도 세상물정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를 경영하는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시집을 한 번 내보자고 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었는데 지역에서 시집을 냄으로써 지역시인이 갖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였다. 지역에서 시집을 내면 시인인 내가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지역 문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지금도 후배가 했던 이런 말들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교정쇄를 받아들고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아직도 나 혼자만의 시인이므로 세상에 나의 부끄러움과 모자람을 완연히 드러냄으로써 나를 더욱 더 객관화시키고 세상 바깥에 사는 나를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내가 첫 시집을 내는 이유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나의 첫 책, 시집『어떤 인연』은 500부 한정판으로 내가 돈 한 푼 안들이고, 어디로부터의 지원금 한 푼 없이 지역의 출판사인 '사람과 나무'에서 2006년 2월에 출판되었다.

양곡

1984년 '개천문학' 신인상. 2002년《문예운동》신인상. 시집『어떤 인연』『길을 가다가 휴대전화를 받다』『혁명은 오지 않는다』. 제2회 경남작가상 수상. 현 경남작가회의 지회장.



순분 여사와 소희네 가게

고희림

밟히고 눌리고 꺾이고 던져지고 부서지고 어제도(4월 23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평화의 그물을 두른 채 평화롭게 살고자 하였으나 국가가 보낸 무수한, 칼 든(그물을 자르기 위해) 경찰 병력에 의해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사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언제까지나 지금껏, 하마나 전쟁이 날까, 하마나 살림이 풀릴까, 하마나 민주주의가 될까, 하마나 통일이 될까, 하마나 사람같이 살아볼까 이런 생각뿐이었던 소성리! 수요일엔 늦은 2시의 집회가 열리고 토요일엔 늦은 8시의 문화제가 열리며, 별이 들어가는 지명이 억수로 많은 이제는 우리의 마을.

소성리엔 우리들이 있었고 우리들에겐 소성리가 있었고, 우리란 우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군이, 경찰이, 국가가 마을에 침을 뱉거나 말거나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스르르 스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너무 부끄러워지고 있는 걸 빼면, 저 깃발이 저 천막이 저 기도가 저 지킴이가 저 컵라면이 저 생수가 저 쌀들이 늘 떨어지지 않는걸 보면 소성리는 평화에 대한 기대가 많은 곳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점점 미군과 경찰과 건설업자들과 헬리콥터가 마을의 아래위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만, 최고의 창과 방패는 평화의 방패를 들고 통일의 창으로 물리치는 것임을 알았기에 소성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수요일 토요일 평화장터를 개장해서 가게 문을 열고 그 수익금으로 공동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버스를 빌려 다른 지역의 평화 행동에 동참을 하고 후원금으로 쓰고 모으고 저축하고 있습지요. 버릴 수 없는 조상의 마을을 지키려 즐겁게, 함께, 질기게, 사드라는 고물 전쟁 무기를 뽑아내려 평화의 노래, 평화의 합창, 평화의 외침, 평화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자 이제 내 친구의 가게! 이름 하여 '순분 여사와 소희네 가게'를 본격적으로 소개해야겠네요.

두부가 맛있다고 소문난 임순분 여사가 우리 콩으로 담은 된장과 간장, 입맛이 깐깐한 원불교의 식품인 고추장, 약초 언니가 정성껏 키워 만든 약초 물품들, 약초 차는 와송과 꿀풀, 느릅, 질경이, 산사자 다섯 가지 약초를 섞어 물로 끓여 마실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수육 약초는 와송과 삼백초, 꿀풀, 느릅, 산사자 다섯 가지 약초를 넣어 팔팔 끓인 물에 고기를 넣어 삶을 수 있으며, 고기의 잡내를 싹 제거하고 쫄깃한 육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답디다. 와송과 다래, 산사자로 볶아서 만든 약초 소금 유기농 참외로 만든 잼 차나 음료로 마실 수 있는 곰보배추 효소와 산사자 효소.

저랑 김상패 감독이랑 술친구이신 팔순 다섯인 봉정 할배는 평생 곰보배추 이파리 한두 장 삶아 우려낸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땐 아무도 곰보배추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었지만, 봉정 할배는 꾸준히 마신 물, 감기가 오려고 할 때 따뜻하게 자주 마시면 감기가 뚝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효능이 있다는,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아도 건강하게 산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요.

산사자는 새콤 달콤, 매실보다 부드러워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 편, 소화기에 좋다고 하고요, 어류독소에 해독효과가 있다고 하니,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면 통풍에 효과가 있다고 합디다. 소성리 농가에서 생산한 표고버섯, 표고버섯 가루는 신비의 가루, 찌개에 한 숟갈 넣으면 감칠맛이 끝내주고요, 라면에는 한 숟갈, 된장찌개에도 말린 표고버섯을 넣어 표고의 독특한 향이 된장과 어울려 입맛을 돋운대요.

오늘도 평택으로 강정으로 광화문으로 가는 평화버스가 떠날 땐 다들 손에는 한보따리씩 가게 물건이 들렸지 않았겠습니깨! 손을 흔들어 배웅을 하며 저무는 소성리를 진밭에서 내려보면서요, 번져서 문드러진 붉은 눈으로 가게 정리를 하면서 저녁 간식거리를 준비하는 순분여사와 소희네 가게 곁에는 땔감을 모으는 작은 바위 얼굴 재영 아재나 기타를 달랑 멘 진석씨나 막걸리 소주 봉다리 흔드는 우리 중 현철이나 커피를 들고 생밤 생고구마씨을 들고 두둑한 윗옷 하나씩은 어깨에 걸치고 겹치지 않게 앉아라 앉아라 자릴 모아주는 금연 할매나 서늘한 등 비스듬히 들이밀게 비켜주며 대체로 양 손바닥을 펼쳐 난롯불(여긴 기온도 낮고 일교차가 심해 할매들 감기 드실까봐 아주 아주 초여름까지 난로를 피운답니다)가를 둥글고 두툼하게 어루만지면 점점점 느려지며 노근해지는 말투가 바람결 같은 한 숨자락에 날려 저 나뭇잎 잎을 징검징검 오르고 사랑과 멍에가 여울진 깃발들이 곳곳에 빽적지근하게 양어깰 들먹인 줄도 알지만 별의별 나무의 창가에 매달린 저 달이 기어이 움푹 베어 물린 살점을 안고 발구름을 해요. 4월26일, 9월 7일, 11월 21일(2017년), 4월23일(2018년)을 안내한 감시자들, 아무 일 없다는 듯 슬며시 기어드는 외부자들을 은빛 연통같은 가슴에 새기며 속된 카메라가 돌아가는 경찰숙소와는 정반대로 시끄러운 달빛 아래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라도 가게 앞 장터에 앉아 서로의 다짐에 좋아 죽어요.

고희림

시인. 99년《작가세계》등단. 시집으로『평화의 속도』『인간의 문제』『대가리』『가창골 학살』등이 있다.



모두가 뜨거웠던 〈1987〉

주영국

광주에서 서울까지 왕복 8시간 버스를 타고 광화문 촛불집회에 다녀온 아내가 울었다. 울면서도 웃었다. 잘하면 이번에…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이번에… 희망을 이룰 것 같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정의와 민주의 가치를 가지고 놀던 수구 적폐세력들의 연대는 철옹성이었다. 촛불 그림자에 비친 봄꽃 한 송이가 보이긴 했으나, 겨울은 여지없이 깊었고 봄은 멀게만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마음속으로는 만 번도 넘게 촛불을 들었으나, 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신분에 갇혀 제대로 된 나라를 찾으려는 민주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지 못했다. 마음으로만 촛불을 들고 함께하는 수밖에 없었다. 생때같은 대학생 2명이 군사 독재의 공권력에 의해 살해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들불처럼 일어나던 1987년 그해에도 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골방에서 애먼 벽이라도 향해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했다. 비행장이 있는 경상도 어느 산촌에서 공직의 이른 밥벌이에나 열중하고 있었다.

종철이를 살려 내라고, 한열이를 살려내라고 악을 쓰며 대들어 보지 못했다. 맞서 싸우다 죽고, 잡혀가 고문당하다 죽고, 싸우다 지친 사람들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호 하나 남긴 채 속절없이 죽어가던 시절. 당시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이 배움의 전부였던 나는 궁금하기도 했다. 서울대 연세대와 같은 일류 대학을 나오면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성장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며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흘린 피와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는 시민들의 저항에 독재자가 결국 항복(?) 선언을 하게 되고, 그해의 6월 항쟁으로 일정 수준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영화의 카피처럼 〈1987〉년은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뜨거웠던 해였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피를 먹고 자라는 꽃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으나,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과정은 지난하다고만 하겠다.

계룡산의 황재학 형님,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룡산의 산색이 보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근간에 평안하신지요? 촛불혁명 이후 다행스럽게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갈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평화가 일상이 되게 하려는 여러 시도들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더없이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과 북의 정상이 분단의 경계선에서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진짜로 놀랄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형님, 저는 어쩌다 보니 촛불 혁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 겨울 독일의 인권재단에서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에버트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의지와 헌신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님, 40여 년간 정들었던 교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형님의 1987년 살아온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반민주 정권에서 형님께 고초를 겪게 한 전교조가 태동하던 시절의 젊은 교사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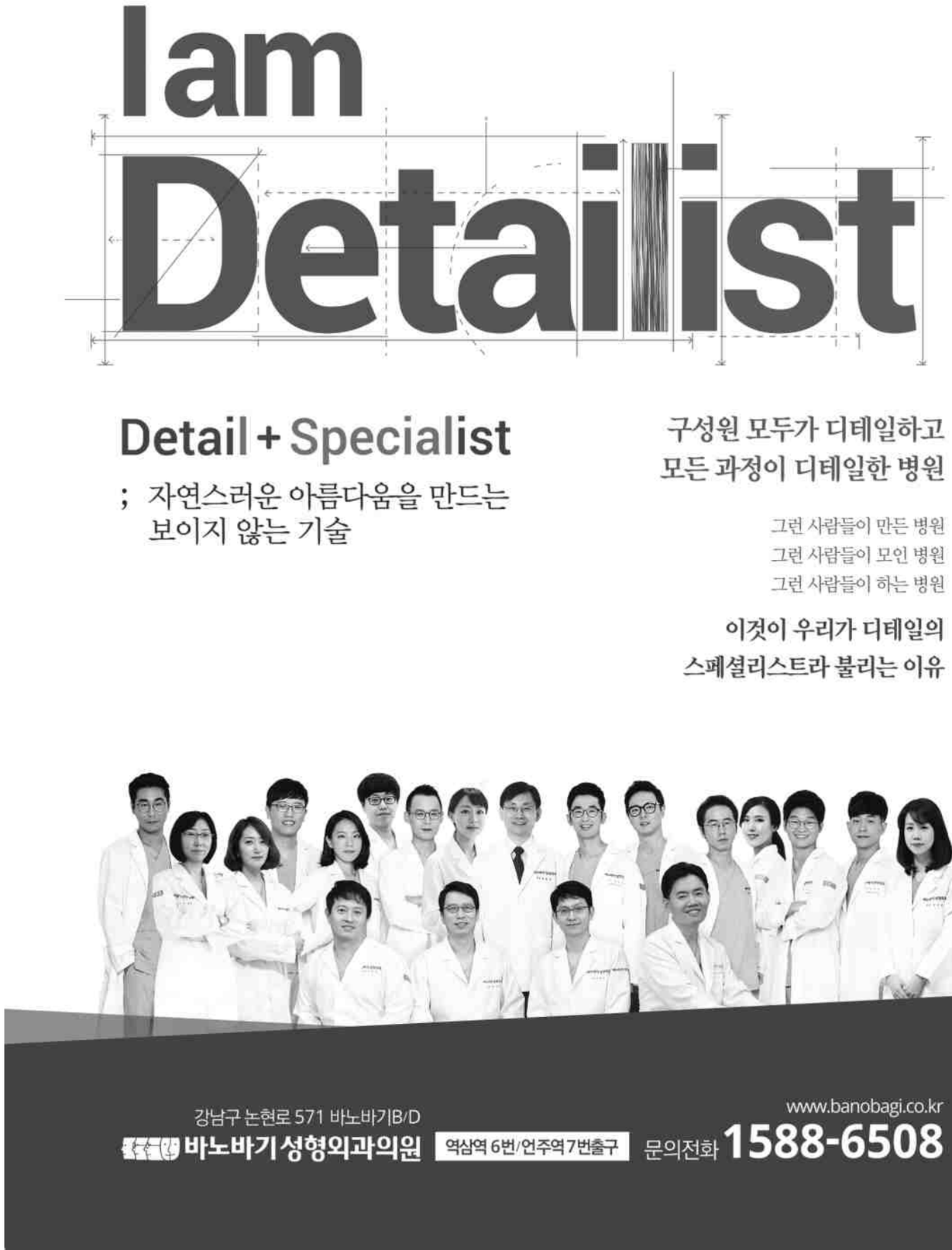
낙낙하게 봄비 내리는 오월, 다시 〈1987〉을 보려고 합니다. 그해 유약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한껏 외치고 울려고 합니다. 형님의 더 푸른 후반부를 응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멀리 무등을 바라보며 주영국 드림

* 114호 영화 소개는 황재학 시인입니다.

주영국

전남 신안 출생. 2004년 전태일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 시작. 제19회 오월문학상 수상. 죽란시사회 동인. 한국작가회의 회원.





고양이 울음소리

이예훈

노인은 종내 울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며 마루 끝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흘끔거렸다. 잠자리 날개 같은 겨울햇살은 이미 서향 마루 깊숙이 들어와 있었지만 전화기에서는 단 한 번의 벨소리조차도 울려오지 않았다. 노인은 벌써 몇 번이나 방문 틈서리를 빠져나온 전화선을 손으로 더듬어 확인해 보곤 했는지 모른다. 수화기를 집어 들면 띠– 하는 신호음이 누구든 신호만 보내면 즉시 울려 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듯 맑게 울려왔다.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노인은 허리께까지 흘러내린 치마말기를 추슬러 올리고는 마당으로 내려섰다. 노인의 발길은 돌담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축사로 옮겨갔다. 흙벽돌을 조잡스럽게 쌓아올려 야트막하게 지은 너덧 평 남짓의 축사는 텅 비어 있었다. 테두리가 깨어져 헤벌쭉 벌어진 채 한쪽 구석에 나동그라져있는 고무통하며 바닥에 흩어져 희뿌연 곰팡이를 피우고 있는 여물 부스러기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노인이 불현듯 어깨를 움츠리며 진저리를 쳤다. 그 일이 생각 날 적마다 온몸으로 번져오는 무섬증을 노인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마당에 들어서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노인을 반기는 염소 울음소리로 온 집안이 시끌벅적해지곤 했었다. 축사 안에는 어미염소 두 마리와 동짓달에 낳은 새끼 네 마리가 합쳐져 여섯 마리가 살고 있었다. 낳은 지 두 달이 막 넘어서고 있는 새끼 염소는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까만 털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여간 귀엽지 않았다. 노인에게 그 염소들은 아무 부담 없이 마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식구이고 동무였다. 한겨울에 낳은 새끼를 노인은 손수 거두어 기르다시피 했다. 추위를 못 견뎌 밤새 울어대는 놈들을 방안에 안아다 놓으면 노인 옆으로 오물오물 몰려들어 잠이 들곤 했다. 잠결에 따듯한 체온이 살갗에 느껴질 때면 노인은 벽처럼 말라붙은 자신의 젖가슴에 피가 도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불쑥 그 여린 생명을 끌어당겨 젖을 물리고 싶은 충동이 일면 노인은 새끼들을 야멸차게 윗목으로 밀어젖히고 돌아누웠다.

요즘 들어 부쩍, 까마득히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이 어제 일처럼 불쑥 불쑥 앞으로 다가드는 것이 노인은 두려웠다. 웬일인지 옛날 일들이 선명히 살아날수록 근래의 일에 대해서는 점점 기억이 흐려져 갔다.

축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노인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사료통을 들고 나오려는 데 둔중한 물체가 발끝에 채였다. 쥐덫이었다. 걸림 쇠의 날카로운 톱날에는 핏덩이가 까맣게 엉겨붙어있고 거기에 회색빛 털이 몇 가닥 달라붙어 있었다. 어디 가서 필경 굶어 죽었을 게야. 집어 들었던 쥐덫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노인이 혼잣말을 했다.

며칠 전이던가. 아침에 일어난 노인이 습관처럼 축사에 들러보니 급히 두어 걸음 몸을 피하던 고양이 한 마리가 이내 움직이길 포기하고 애잔한 울음소릴 내며 노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고양이의 뒷다리에 쥐덫이 매달려 있었다. 며칠을 그렇게 끌고 다녔든지 뒷다리는 곧 끊어져 나갈 듯 겨우 매달려 있었고, 고양이는 삶을 포기한 듯 지친 모양새였다. 노인은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 쥐덫을 풀어주고 밥을 한술 떠다 놓아주면서도 금세 숨을 거둘 것만 같아 가까이 하기가 꺼려졌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가보니 고양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차라리 잘 되었다싶었다.

그 날은 밤새 바람이 불었다. 초저녁에 설핏 눈을 붙였다가 바람소리에 잠이 깬 노인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밖에서 가냘픈 염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놈들도 심란한 게로군. 노인은 돌아 누우며 혼잣말을 했다. 그 때 찔러. 어서. 하는 짧은 말소리가 노인의 귀속으로 너무도 또렷이 파고들었다. 노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온몸으로 소름이 쫙 끼쳐오는 오는 것을 느꼈다. 고약하긴, 살만큼 산 늙은이가 무서울 것이 뭐가 있다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헐헐단신 혼자 누워있는 늙은 육신을 생각하면 무섬증보다도 더한 적막감이 자신을 내리누르는 것이었다. 노인은 가만히 일어나 창호에 붙여놓은 손바닥만 한 유리조각을 통해 밖을 살폈다. 축사 앞에는 멍석자리만한 불빛이 땅바닥을 기어 다니고 서넛의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염소들은 웬일인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채 사내들에게 들려 나가고 있었다. 그 일은 거의 눈 깜박할 사이에 치러졌다. 그들이 사라지자 밖은 거짓말처럼 다시 어둠속으로 가라앉았다. 노인은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노인은 그렇게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꼬박 밝혔다. 그 후로 더 이상 이곳에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말았다. 지난해에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있긴 하지만 노인은 굳이 아들과 살림을 합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 새롭게 서울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을 뿐더러 분결같이 곱기만 한 새 며느리 시중을 받으며 한집에서 사는 자신은 아무래도 상상이 되지 않았다. 가끔 볼 일이 있어 아들집을 찾아 갔을 때도, 반들반들 윤이 나는 새살림이며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아들 내외에게 자신은 거추장스러운 짐짝으로만 느껴졌다. 평생 일을 손에서 놓아 본적이 없는 노인에게는 아무 소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설자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럴 적마다 노인은 며칠 더 묵기를 권하는 아들내외에게 집에 두고 온 염소를 핑계로 훌쩍 시골로 내려오곤 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부터는 휘휘하게 비어 있는 축사만 보아도 가슴이 벌떡거리고 밤이면 문을 스치는 바람소리에도 섬뜩섬뜩 온몸에 오한이 이는 것이었다.

마침 며느리가 산월이 되어 해산날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노인은 이번 참에 며느리 해산도 도울 겸 서울로 옮겨갈 작정을 하고 있었다. 손자가 생긴다면 직장 다니는 며느리에게 아이 보아줄 사람이 필요할 테니 자신이 의지해 볼 자리가 있을 듯도 했다. 그래서 어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의향을 비쳐 보았었다. '새 애기 산일이 다가오니 내가 올라가랴?' 전화기 밖에서 뭔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아들이 조금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집사람 해산바라지는 장모님이 해주실 모양이에요. 아이 낳으면 연락할 테니 어머니는 그 때나 올라와 보세요.' 노인은 전화기를 잡은 손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가슴이 떨려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해가 산마루를 넘는 것을 바라보면서 노인은 마루위로 걸터앉았다. 집안 구석구석 어둠이 몰려들고 있었다. 종일 밖에서 서성인 탓인지 허리께가 무지근히 아파왔다.

방에 군불이라도 지펴야겠다싶어 막 일어서는 데 어디선가 가늘고 분명치 않은 지절거림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것은 작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스락 거리며 마른 잎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노인은 무심코 주변을 살폈다. 누르스름한 마대를 문짝삼아 매달아 놓은 벽장에 노인의 눈이 멎었다. 저 놈의 쥐들이 뭐 먹을 게 있다고 저 난리람. 혼자 두런거리며 마대 자락을 젖히던 노인이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이런 세상에……. 벽장바닥에는 대여섯 마리쯤 되어 보이는 새끼 고양이들이 오글대며 놀고 있었다. 그리고 한 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어미 고양이가 노인을 보고는 알은 채라도 하듯 가느다란 울음소릴 냈다. 넋을 놓고 고양이들의 하는 양을 지켜보던 노인은 새끼들을 한손으로 모아 어미에게 밀어주고 돌아섰다. 까만 전화통이 불쑥 시야에 밟혔다. 노인은 말없이 전화통을 집어 방으로 밀어 넣고 부엌으로 들어섰다.

이예훈

1993년 『호서문학』에 첫 단편 「봄볕」 발표. 1995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소설당선. 1996년 『소설과 사상』 신인상. 2014년 대일문학상 수상. 저서로 『딸들의 방』 『이타방』 등이 있다.



버스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이정임

봄에서 가을 사이, 맑은 날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를 사랑한다. 이 시간에 어딘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으면 참 좋다. 특히 이 계절, 이 시간대에, 이 길 위를 한적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일. 이동의 목적지가 집이라면 더 좋은 일이다. 목적지 없이 버스를 타는 일은 의미도 없다.

구체적으로 적어보자면 이렇다. 나는 볼 일을 보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탄다. 버스에는 승객이 거의 없는데 창으로는 햇볕이 끈질기게 들러붙고 창밖의 풍경은 선명하다. 차는 배차시간을 맞추느라 여유롭게 달린다. 좁은 골목이 많은 부산의 도로 특성 때문에 버스는 자주 뒤뚱거린다.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골목을 지나 민들레맨션 정류장에 멈췄다가 동백꽃이 활짝 핀 은하탕을 지난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로도 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사람들 관찰을 하며 이야기를 구상한다. 음악을 듣고 있었다면 그 음악과 내가 구상하는 소설의 연결지점을 발견하고 혼자 흐뭇해하기도 한다. 왜 운전면허를 따지 않느냐는 질문을 들으면 '버스 타는 것을 좋아하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잡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라는 대답을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느긋한 버스를 타지 못한다. 버스를 탈 때마다 소란스럽고 색다른 장면을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적어보자면 이렇다.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가는 마을버스로 환승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버스의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해 2단 플라스틱 화분선반이 올라온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혼란스럽다. 선반은 서 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니 뒷좌석 앞 통로에 놓인다. 그리고 선반과 함께 올라온 60대의 할머니가 그 위에 걸터앉는다. 선반의 다리가 다른 사람의 승하차를 방해했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선반을 두고 뒷좌석의 할머니들은 선반의 주인을 부러워한다. "물건 좋네, 얼마에 샀능교?" 분명 처음 보는 사이인 할머니 넷의 대화는 십년지기 친구들의 대화처럼 막힘이 없다. 그들의 대화는 '공짜로 얻었다는 화분선반'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해서 각자 '집에서 키우는 채소'의 정보로 이어진다. 선반은 산비탈 어느 정류장에서 느릿느릿 하차한다. 버스에 남아있던 80대의 할머니가 저 멀리 사라지는 선반을 보며 한 마디 한다. "좋—을 때다. 저 나이 땐 저런 게 재밌거덩. 젊을 때, 내도 그랬다꼬. 옥상이 전부 밭이었다꼬."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마을버스에서 만난 노인들은 자주 그랬다. 정류장에서 만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면 버스를 세워둔 채로 이야기를 모두 마친 다음에 버스에 올랐고, 관절염과 디스크로 고생하는 몸 때문에 엉금엉금 느리게 차를 타고 내렸으며, 좌석에 자리가 다 차면 요금함 앞의 턱 같은 곳에 아무렇게나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통행을 방해했다. 그렇게 이동 시간을 지체시켰다.

개항, 일제강점기, 광복, 전쟁을 거치면서 다수의 이주노동자, 피난민이 부산의 산동네로 모여 판잣집을 지었다. 인구가 늘어나자 산복도로가 생겼고 원도심의 산복도로는 보통 '망양로(부산항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길)'를 말하는데 내가 사는 곳은 망양로보다 더 위쪽, 수정산과 맞닿은 골목에 위치한 달동네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말에 홀려서 오긴 했지만 서른다섯 해를 도심의 평지에서만 살던 나는 노인들과 시차(時差)가 맞지 않아 애를 먹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내 생활 시계는 이 동네와 맞지 않았다. 노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동네는 그들의 시계에 맞춰 돌아갔는데 가장 가까운 슈퍼는 초저녁에 문을 닫아버렸다. 담이 붙어있는 옆집에는 할머니 두 사람이 아침 6시부터 공업용 재봉틀을 돌렸다. 옆집에 찾아가 8시부터 하시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는 남편의 말에 할머니가 되레 화를 냈다.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걸 우짜라꼬?" 그런데 희한하게도 버스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도는 것이다.

이제는 버스를 타면 나의 이야기는 곧 지워진다. 이사 오기 전까지 버스를 타는 일은 내 속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관찰하기 바쁘다. 지금의 노인들이 일군 이주민의 역사. 억척스런 그들의 삶이 동네 곳곳에 남아있다. 지금 노인이 된 그들의 시간, 성격, 행동 등은 가난, 이념 등과 싸우듯이 살아온 데서 비롯됐을지도 모르겠다. 노인과 나의 시차(時差)가 다른 것이 아니라 노인과 내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 시차(視差)가 다른 것이다.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맨 앞에 줄을 섰는데도 결국 가장 늦게 탔으므로. 산복도로 생활 2년차지만 아직도 나는 시차 적응 중이다.

이정임

2007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옷들이 꾸는 꿈」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 시작. 제20회 부산소설문학상 수상. 소설집으로 『손잡고 허밍』



울산작가회의

이수진

울산작가회의(회장 최장락)는 올해로 창립 22년을 맞이했다. 오랜 기간 많은 작가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문학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 나아가 회복을 위해 매진하는 치유의 상징으로 함께해 왔다.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소설, 시, 동시, 동화 등 4개 분과에서 약 30 여명 정도이다. 25번째 종합문예지 「울산작가」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집과 기획을 마련하여 울산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울산작가」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도 갖고 있다. 또한, 6월이면 성남동 중구문화의거리 '고복수길'과 "똑딱길"에서 회원들의 시 100여 편을 전시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북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는 김태수 시인(초대회장)을 모시고 북 콘서트를 개최하여 시민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울산작가회의는 올해도 수준 높은 작품과 시인을 초청해 북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울산작가회의 회원들은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더 치열하게 작품에 열중할 것이다. (울산작가회의 :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5)



왼쪽부터 우덕상(동시), 조숙(시), 최장락(시), 이상열(시), 이규원(시), 이수진(시), 이제향(시), 서경(시)

이수진

2017 『창작21』로 등단. 현 울산작가회의 사무국장.

■ 서울본회 ■

[새책]
고인숙 시집 『시련은 깜찍하다』(황금알), 김륭 시집 『원숭이의 원숭이』(문학수첩), 김수복 시집 『슬픔이 환해지다』(모악), 김언 시집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문학동네), 김응교 『부러진 나무에 귀를 대면』(천년의 시작), 김해자 시집 『해자네 점집』(걷는 사람), 박라연 시집 『헤어진 이름이 태양을 낳았다』(창비), 박철 시집 『없는 영원에도 끝은 있으니』(창비), 오영숙 시집 『꿈꾸고 싶어요 나는 아직도』(현대시작), 이정록 시집 『동심언어사전』(문학동네), 전영관 시집 『좋은 말』(청색 종이), 조유리 시집 『흰 그늘 속 검은 잠』(시산맥사), 조은 시집 『옆 발자국』(문학과 지성사), 주선미 시집 『안면도 가는 길』(시와 문화), 홍일표 시집 『나는 노래를 가지러 왔다』(문학동네), 윤금초 시조집 『뜬금없는 소리』(고요아침), 이정환 시조집 『오백년 입맞춤』(작가), 가백현 장편소설 『대디를 부른다』(젤코북), 김세인 장편소설 『오, 탁구!』(작가), 김우남 소설집 『빠꾸기 날리다』(문예출판사), 안재성 장편소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창비), 이갑수 소설집 『편협의 완성』(문학과 지성사), 이정 장편소설 『압록강 블루』(서울 셀렉션), 한지수 장편소설 『40일의 발칙한 아내』(문학사상), 우찬제 평론집 『나무의 수사학』(문학과 지성사), 박철 동시집 『설라므네 할아버지의 그래설라므네』(문학동네), 이지혜 산문집 『조각의 유통기한』(이봄)

[수상]
서효인 시인 제20회 천상병詩문학상 수상, 장석남 시인 제18회 지훈상 수상.

[경조사]
김성동 소설가 모친상, 김종숙 시인 부친상, 선안영 시조시인 부친상, 은미희 소설가 모친상, 조미녀 소설가 부친상, 하병연 시인 부친상.

* 지회 가나다 순 *

■ 강원작가회의 ■

[새책]
강기희 장편소설 『위험한 특종』(달아실)

- 7월14일~15일. 청소년 문학캠프, 진로 교육원과 함께 속초에서 개최 예정.
- 제주 4·3 70주년 기념행사에 2박 3일 참가.

[경조사]
이언빈 시인의 모친상

■ 경남작가회의 ■

[새책]
전점석 칼럼 『진해 근대문화유산의 재발견』(진해문화원)

-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년 추모제(창원 상남 분수 공원)
- 4월 17일. 경남도민일보 주관 경남작가회의 주최 경남청소년 문학상 진행.
- 4월 22일. 경남작가회의 2/4분기 이사회(창원 생각누리)
- 5월 2일. 일제강제동원 노동자상 제막식 참여.
- 5월 11일. 이선관 시인 시비 제막식 참여.
- 5월 30일. 경남청소년 문학상 심사 예정.

■ 광주전남작가회의 ■

[새책]
고선주 시집 『오후가 가지런한 이유』(도서출판 b), 김 완 시집 『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천년의 시작), 차노휘 『쉼표가 있는 두 도시 이야기』(에코미디어), 이화경 장편소설 『탐욕』(문학들), 박종화 서예산문집, 『임을 위한 행진곡』(심미안)

- 2018년 3월~11월. 〈오월인문학〉 '한편의 소설과 서른 편의 시로 읽는 오월 이야기' 광주동구지역자활센타에서 진행.
- 2018년 3월~11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예술이 된 오월' 5·18기념관 영상실에서 진행.
- 5월 1일~31일. 광주오월문학축전. 〈오월의 나무에서 통일의 꽃을 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묘역 일원에서 진행. 광주·전남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 주최. 광주시, 5·18기념재단, 5·18행사위원회 후원.
- 5월 19일. 오월문학포럼. 주제 '통일문학을 대비하는 오월문학'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강당에서 진행. 광주오월문학축전 조직위원회 주관. 본행사 1부: 518문학상 시상식, 2부: 개막식, 3부: 오월항쟁 추모문학의 밤.
- 5월 20일. 5·18 사적지 답사 및 추모. 신묘역 참배와 구묘역 추모식, 걸개시화 감상.
- 5월 1일~30일. 시, 산문 걸개 시화전. 한국작가회의 전국 각 지회 회원 작품을 망월 구묘역 일대와 본 행사 장소 둘레에 설치.

■ 대구경북작가회의 ■

[새책]
김은령 시집 『잠시 위탁했다』(문예미학사)

- 3월 31일. 대구문학관 4층 세미나실, 4·3 70주년 평화특강 "기억으로써의 문학" 『순이삼촌』의 저자, 현기영. 대담 : 이하석 시인.
- 4월 14일. 안동 이육사문학관.
- 4월 27일~29일. 제주작가대회 참가.
- 여름문학제(7월 예정) 시선집 발간 준비.
- '제4회 박영근작품상' 김수상 시인 (대구경북작가회의 사무국장)

■ 대전작가회의 ■

[새책]
김우식 시집 『아침 숲에 들다』(시선사), 김완하 시집 『집우물』(천년의 시작)

- 유진택 시인 대전문학관 2018년 〈시확산운동〉 중견작가 선정.
- 4월 4일. 대전작가회의 상반기 〈창작교실〉 개강.
- 4월 15일. 〈우리동네작가들〉 전시.
- 4월 22일. 〈창작의 미래〉 2차 모임 (김정숙 평론가'소설의 형식, 소설의 무형식'발표)
- 4월 27일. 제주 전국문학인대회 회원 참가.
- 5월 19일. 광주 5월문학제 (김희정 시인 시낭송) 및 걸개시화전(김광선, 김백겸, 김수려, 김채원, 정원 시인) 참가.
- 4월 5일~5월 5일. 김희정 시인 〈미룸 갤러리〉 홍성담 작가 세월호 추모전.
- 5월 10일~6월 8일. 김희정 시인 〈미룸 갤러리〉 홍성담 작가 오월 목판화전.
- 5월 22일~27일. 김나무 작가 극본/연출 연극 〈멸망〉 (소극장 고도) 공연.
- 6월 23일~24일. 2018년 상반기 출판기념회 겸 대전작가대회 예정.

■ 부산작가회의 ■

[새책]
이상섭 팩션집 『거기서 도란도란』(산지니), 정광모 소설집 『나는 장성택입니다』(산지니), 고명자 시집 『그 밖은 참, 심심한 봄날이라』(시작), 권애숙 시집 『흔적 극장』(포엠포엠)

[경조사]
4월 13일. 이규정 소설가 영면, 4월 8일. 박성웅 시인 영면, 4월 14일. 나여경 소설가 부친상.

- 4월 27~28일. 전국 문학인 제주대회 32명 참석.
- 5월 11일. 제54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개최.

■ 인천작가회의 ■

[새책]
박일환 시인의 국어학습서 『어휘 늘리는 법』(유유), 최원식 평론가 『파국론에 등을 돌리고』(다인아트)

[수상]
조정인 시인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 고광식 시인·평론가 시작품으로 아르코 창작기금 수여.

- 인천작가회의 20년사 편찬위원이 구성되었다. 위원장; 이세기 시인. 편찬위원; 강수환 평론가, 양재훈 평론가, 이병국 시인·평론가, 이상실 소설가, 이재용 평론가. 편찬위간사; 옥효정 시인.
- 인천작가회의 20주년 행사장소가 10월 27일(토) 오후 3시~6시 인천아트플랫폼C동 공연장으로 확정됨.
- 20주년 관련 '인천작가회의 문집' 발간을 위한 회원 원고모집이 6월 30일 마감된다. 문집에는 시, 소설, 동시, 동화, 평론이 수록될 예정.
- 5월 10일. 최원식 문학평론가(인천작가회의 고문)의 칼럼집 『파국론에 등을 돌리고』(다인아트)의 출판기념회가 인천아트플랫폼 칠통마당에서 열림.
- 5월 12일. 인천작가회의 회원이었던 故 박영근 시인의 12주기 추모행사가 인천시 북구도서관 및 그 일원에서 열림.
- 6월 2일. 한국근대문학관 2층 로비에서 '한국근대문학관 2018 작가와 만나는 토요일–인천, 시인과 만나다'라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이설야 시인이 출연할 예정.
- 6월 23일. 계간 『작가들』 봄호(64호) 및 여름호(65호)에 대한 출판기념회 및 회원 만남의 날 행사가 인천작가회의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

■ 전북작가회의 ■

[새책]
서철원 『혼불, 저항의 감성과 탈식민성』(태학사), 윤일호 『논리짱짱 주장팍팍』(현북스)

-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있는 문병학 시인,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서울 종로 옛 전옥서 터에 건립.
- 이재규 회원이 북카페 〈ㄴ의 서재〉 운영. 매달 지정 작가 초청 강연도 있을 예정.
- 4월 27일~29일. 4·3항쟁 70주년 제주작가대회에 '4·3과 동학은 형제다'라는 로고를 들고 참가.
- 5월 26일. 오전 9시~ 오후 5시. 〈제22회 전북고교생백일장〉 개최 예정. 주관 전북작가회의, 전북문인협회, 후원 전라북도 교육청, 목정문화재단.

■ 제주작가회의 ■

[새책]
『제주작가』60호(심지), 제주작가회의 제주 4·3항쟁 70주년 기념 문학선집 『그 역사, 다시 우릴 부른다면』, 김경훈 시집 『강정木시』(Bookk), 김병택 시집 『초원을 지나며』(심상시선), 김윤화 동화집 『킁킁가게』(샘터사)

[수상]
이종형 시인 5·18문학상 수상, 시집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삶창)

- 4월 21일. 전국문학인 제주대회 사전 행사 – 제주 4·3 문학의 현장을 찾아서 '도령마루를 아십니까' 개최.
- 4월 27일~4월 29일. 전국문학인제주대회 개최.
- 5월 26일. 제주문학의집 강덕환 시인 초청 북콘서트 '허허실실' 개최 예정.

■ 충북작가회의 ■

[새책]
이강홍 장편 『레옹을 만나는 시간』(소울박스)

[경조사]
박원희 시인 모친상

■ 충남작가회의 ■

[새책]
이동순 시집 『어둠을 켜다』(문학의전당), 유용주 시집 『서울은 왜 이렇게 추운겨』(문학동네)

- 3월 30일. 충남작가회의 이사회의(서산): 신입회원 5명 입회 승인(이은봉, 최수웅, 김지훈, 이복현, 한준헤), 충남민예총 설립 추진(추진위원장 김홍정)
- 4월 27일~30일. 4·3항쟁 70주년 제주작가대회 참가.
- 5월 8일. 충남작가회의 기관지 〈작가마루〉 원고 마감.

* 지부 가나다 순 *

■ 경기광주지부 ■

- 4월. 시 창작교실 논의 및 미정, 광주지부 박경분 회장 입원 및 수술, 강남률 부회장 입원 및 수술, 문학기행 논의 및 결정, 시낭송 및 합평.
- 5월. 시 창작수업 운영 및 결정, 한산도 선생님 큰 딸 결혼식(5월19일), 23집 원고 모집 및 마감예정 알림, 천렵행사 논의 및 결정, 시낭송 및 합평.

■ 고양지부 ■

- 4월 18일~19일. 문학기행. 전북부안 신석정문학관~변산반도 일대, 채석강, 내소사.
- 전주한옥마을 일대~경기전, 최명희문학관, 강암서예관, 향교, 오목교, 진안 마이산.
- 4월 27~30일. 제주 4·3항쟁 70주년 전국문학인대회 참가.

■ 부천지부 ■

[새책]
한상현 시집 『아름다운 여정』(산과들)

- 3월 30일~4월 4일. 신춘시화전 (부천시인협회)
- 5월 5일. 부천시민시조백일장. 시낭송 '부천詩, 일어나 비추어라'(복사골문학회). 부천 동화작가와의 만남(강정규, 문이령, 유타루, 최금왕, 최동심)
- 5월 6일. 부천시인, 소설가와의 만남(박용섭, 양성수, 금미자, 황인수, 이재욱)
- 5월 7일. 부천시인과 수필과의 만남 (최미아, 서순옥, 홍영수, 임내영, 양정동)

■ 순천지부 ■

- 3월 1일. 이성아 소설가 단편소설 「그림자 그리기」로 이태준 문학상 수상.
- 4월 7일. 조계산으로 정기산행.
- 5월 27~29일. 제주 4·3항쟁 70주년 전국문학인대회 12명 참가.
- 5월 27~6월 9일. 순천역 갤러리(2층)에서 시화전시 예정.
- 6월 9일. 저녁7시 장안창작마당에서 시낭송콘서트 예정.

(사)한국작가회의 회비 납부 현황(CMS · 특별회비 등) 안내

자동이체 및 계좌이체 회비 납부(3월~4월)

자동이체

강영환	고 원	김길녀	김대술	김명환(시)	김명환(평론)	김상영(시)	김성찬	김춘리
김태수	나기철	박수빈	박운식	박종국	배철환	선석현	성선경	신강우
양진오	엄광용	유현숙	유형수	육근상	윤영천	윤요성	이상운	이선식
이선영(평론)	이언빈	이재본	엄광용	엄우흠	임서상	임정옥	장문석	장유리
장인숙	전병철	전성호	전진우	정도원	정우영	정혜경	조갑상	조창규
조유리	조현설	주수자	최자웅	허형만				

연회비

구효서(300,000)	김숨(120,000)	김영현(300,000)	김종필(300,000)	김영란(80,000)	류인서(120,000)
맹문재(150,000)	박선욱(120,000)	박수호(120,000)	박현경(120,000)	박희호(300,000)	이송희(80,000)
차승호 (120,000)	최금왕(120,000)	최종천(120,000)			

특별회비

김해자(500,000)	문동만(500,000)	유시춘(1,000,000)	이도윤(1,000,000)	정찬일(500,000)	주영선(300,000)
한순영(300,000)	현준만(500,000)	신현수(1,000,000)			

특별후원

김지영(11,000,000) 김판수(10,000,000)

광고후원

바노바기성형외과(500,000) 도서출판 걷는사람(300,000) (사)한국산림문학회(1,000,000)

* 일반회비 납부 계좌 : 우리은행 845-05-000551 / 예금주 : (사)한국작가회의
* 특별회비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5-802-113278 / 예금주 : (사)한국작가회의
* 특별회비와 특별후원금으로 작가회의를 도와주신 분들의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장을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계좌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CMS에 가입하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CMS에 가입한 회원 여러분과 직접 회비를 입금한 여러분, 그리고 특별회비 및 회보 광고 후원 등으로 정성을 모아준 회원 여러분께 큰절 올립니다. (사)한국작가회의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큰 사랑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정성과 사랑을 받들어 지구촌을 대표하는 문인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도 CMS 가입 등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비와 관련하여 성함이 빠졌을 경우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고치겠습니다. (02-313-1486~7)

CMS회비 납부자(3월~4월)

가백현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기희 강남률 강덕환 강동수 강동우 강미정 강민경 강민구 강민숙 강민영 강병철 강봉수 강성남 강성원 강세환 강수완 강 순
강시현 강애나 강 영 강영주 강유정 강윤미 강윤화 강은미 강 진 강태규 강현숙 강형철 강호정 고경숙 고경자 고광률 고광식 고명철 고산돌 고성만 고 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우란 고운기 고은규 고은희 고인숙 고인환 고증식 고찬규 고창근 고희림 공광규 공정배 곽구영 곽옥미 곽재구 곽형덕 구자룡 구자명
구중서 권경아 권근화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성우 권 순 권순긍 권순자 권순진 권여선 권영임 권영희 권오현 권오훈 권위상 권정수
권정현 권지숙 권지예 권지현 권채린 권태주 권혁소 권혁재 권현형 권희돈 금은돌 길상호 김건영 김 경 김경식 김경윤(소설) 김경윤(시) 김경인 김경후
김경희 김광선 김광원 김광철 김규중 김근희 김금래 김금희(소설) 김기택 김나정 김남규 김남극 김남길 김남숙 김남영 김남일 김다희 김대갑 김대현 김덕남
김덕우 김동수 김동승 김동윤 김동철 김동환(50생) 김두녀 김두안 김 룡 김 림 김 명 김명기 김명남 김명신 김명우 김명은 김명인(평론) 김명지 김명철
김미경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 민 김민서 김민숙 김민정(경기) 김민정(부산) 김민형 김민효 김바다 김백겸 김별아 김병용 김병택 김보람 김보영(경기)
김 봄 김사람 김사인 김산아 김삼환 김상우 김상출 김상현 김서령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 선 김선영 김선재 김선주(서울) 김선향 김성규 김성우 김성장
김성중 김세인(소설) 김소현 김송포 김수목 김수복 김수열 김수우 김수정(시) 김수화 김 숙 김순란 김순선(대전) 김순선(제주) 김승환 김승희 김신우
김 안 김양호 김양희 김어영 김여옥 김연미 김연수 김연종 김연주 김연필 김연희 김영곤 김영권 김영란(시)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삼
김영숙 김영애 김영언 김영욱 김영주(소설) 김영찬(시) 김영희(소설) 김옥진 김 완 김완하 김왕노 김요섭 김요아킴 김용락 김용만(시) 김용매
김용택 김우남 김우출 김유미 김유진 김유철(소설) 김윤곤 김윤배 김윤숭 김윤태 김윤현 김윤화 김윤환 김 은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시) 김은옥 김은중
김 응 김응교 김이강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일연 김일영 김일하 김자연 김자현 김자흔 김재근 김재영 김재용 김재홍(시) 김재환 김자운 김점용
김정숙(시조) 김정신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호 김정환(54생) 김정희 김젬마 김종경 김종광 김종성 김종숙 김종연 김종원 김종인 김종훈(시)
김종훈(평론) 김주태 김준현 김중일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윤 김진경 김진규 김진돈 김진문 김진수(시) 김진숙 김진환 김진희 김창규 김창균 김창근
김창진 김창희 김채운 김청미 김추인 김태선 김택희 김하경 김하돈 김하연 김하은 김학산 김학중 김해림 김해우 김해자 김향미 김 현 김현곤(경북)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형경 김혜순(시) 김혜정 김호성 김홍신 김홍주 김홍춘 김화숙 김효은 김희식 김희업 김희우 김희정(대전) 김희정(서울) 나민애 나병춘
나여경 나해철 남기택 남상순 남송우 남승원 노지영 도순태 류경희 류근삼 류명선 류미야 류성훈 류수연 류 신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리 산 마 린 마선숙
문계봉 문동만 문무병 문병학 문 신 문영숙 문인수 문재호 문정영 문종필 문창갑 문태준 문현미 민경란 민 구 박경분(광주경기) 박경장 박경희 박광배 박교탁
박구경 박권수 박권숙 박규현 박근태 박금주 박기농 박기섭 박남준 박노식 박덕규 박덕선 박 도 박동억 박두규 박명규 박명숙 박몽구 박민규 박민영 박병례
박병성 박상률 박상봉 박상준 박석구 박석무 박석준 박설희 박성우 박성한 박소란 박소연 박소영 박소원 박수연 박순호 박 승 박승민 박승자 박시교 박시우
박시하 박신규 박연숙(시) 박연숙(어청) 박연옥 박영민 박영현 박예분 박완섭 박우담 박월선 박윤영 박은중 박이정 박 인 박인정 박일구 박일환 박재연
박재웅 박정애(소설) 박정원 박정윤 박제영 박종관 박종국(시) 박종한 박종희 박 준 박지웅 박찬세 박 철 박철영 박탐유 박태주 박필헌 박학봉 박한라
박한열 박해석 박현주 박형권 박형숙 박형준(시) 박혜상 박혜선(어청) 박혜영 박혜지 박효명 박흥순 박희용 박희정 방남수 방민호 방현석 배경희(시)
배교윤 배명희 배봉기 배선규 배성호 배수연 배영옥 배지영(소설) 백기흠 백건우 백낙청 백남이 백무산 백민석 백상웅 백은선 백은하(소설) 백은하(어청)
백정희 범현이 변현상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서광일 서성란 서애숙 서영식 서영인 서영채 서은혜 서정오 서정원 서정택 서정홍 서정화 서종규 서지선 서진연
서홍관 서효인 서 희 석벽송 석연경 석지연 석형락 선안영 성군경 성동혁 성백선 성백술 성향숙 성희직 손병걸 손병현 손순미 손월빈 손인식 손정수 손정순
손지태 손택수 손홍규 송경동 송광룡 송명숙 송명원 송승언 송승태 송애경 송 언 송염만 송은숙 송정섭 송진권 송태웅 송호필 신경림 신기훈 신남영 신단향
신덕룡 신미나 신상진 신수현 신승철 신언관 신연수 신연호 신윤서 신정민(어청) 신철규 신현수(시) 신현수(어청) 신현옥 신혜진 심우기 심윤경 심지현
안덕훈 안도현 안미선 안상학 안성길 안성호 안영선 안영실 안오일 안이희옥 안익수 안재성 안종관 안종수 안주철 안태운 안학수 안현미 안희연 안희정
양 곡 양기창 양문규 양상호 양안다 양애경 양연주 양영숙 양영아 양용직 양 원 양은숙 양재훈 양정규 양지숙 양진기 양혜영 어향숙 엄경희 엄미경 엄원태
엄진희 여성민 염무웅 염민기 염창권 오도엽 오명선 오미경 오미옥 오민석 오성인 오성일 오세혁 오수연 오승희 오연경 오영자 오인태 오종우 오진희 오창은
오춘옥 오태호 온형근 용현중 용환신 우대식 우덕상 우애령 우현옥 원명희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경숙 유금오 유대형 유문선 유병록 유순예 유승도 유시연
유시춘 유안진 유영갑 유영곤 유영진 유용주 유 종 유중원 유채림 유현아 윤경덕 윤관영 윤동수 윤동재 윤범모 윤석위 윤석정 윤석홍 윤선길 윤성학 윤순례
윤영수 윤영전 윤인구 윤일균 윤재걸 윤정모 윤중목 윤지관 윤지영 윤천수 윤해연 은승완 은이결 이가을(어청) 이강산 이경덕 이경림 이경석 이경수 이경자
이경재(평론) 이경호(시) 이경희 이굴로 이 권 이규배 이규원 이근배 이금란 이기순 이남순 이남희 이다빈 이대의 이대흠 이덕규 이도흠 이동식 이두의
이만교 이면우 이명우 이명원 이명윤 이명인 이명행 이명희 이묘신 이문숙 이미숙(소설) 이미숙(시) 이민호 이범근 이병국 이병룡 이병률 이병승 이병철
이병초 이복현 이봉환 이상국 이상번 이상섭 이상인 이상호 이 선 이선균 이선우 이선희 이설야 이성주 이성진 이세경 이소암 이수진 이수풀 이숙현 이숙희
이승은(소설) 이승은(시조) 이승희 이시백 이 안 이어진 이언주 이여원 이연희 이영광 이영숙 이영애 이영주 이영환 이영희 이옥근 이용석(소설)
이용석(시) 이용임 이용준 이용한 이용헌 이운진 이원규 이원오 이원익 이원준 이원화 이위발 이윤경 이윤학 이은규 이은봉 이은선 이은주 이응인 이이후
이인범 이인성 이인호 이장근 이재무 이재복(평론) 이재웅 이재은 이재훈 이정록 이정민 이정섭 이정현 이정화 이정훈 이정희 이제야 이종득 이종민 이종수
이종숙 이종암 이종인 이종형 이주언 이주영 이주희 이준옥 이준희 이중도 이중현 이지담 이지엽 이지호 이진수 이진욱 이진행 이진희 이 찬 이철경 이춘길
이춘우 이태정 이태형 이하율 이학영 이한열 이해선 이해웅 이행자 이향안 이향지 이현수 이현식 이현정 이현호 이형권 이혜경 이호경 이호빈 이홍사 이화경
이화영 이화우 이후경 이희섭 이희종 인은주 일곱째별 임경묵 임경섭 임규찬 임근희 임덕연 임동윤 임동확 임두고 임미리 임백령 임 봄 임성구 임성용
임수빈 임수현 임솔랑 임승유 임영봉 임영천 임영태 임영희 임 윤 임재정 임정연 임정자 임정화 임종철 임지연 임철균 임철우 임한영 임헤라 임형신 임홍배
장경식 장대송 장무령 장봉숙 장상관 장석남 장성규 장세현 장수라 장시우 장영복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우원 장유정 장은영 장이엽 장이지 장재원 장정희
장주식 장지혜 장진기 장진영 장철문 장현숙 전남용 전대환 전동균 전민식 전비담 전성태 전영관 전영주 전욱진 전원일 전인식 전해수 전홍준 정기일 정강철
정기석 정남영 정노윤 정대호 정도상 정란희 정명자 정 미 정미영 정미희 정민나 정범종 정병근 정복여 정봉렬 정석봉 정선호 정성연 정성채 정세훈 정소성
정소솔 정수경 정수자 정순자 정승재 정승희 정안면 정애란 정양주 정연승 정연홍 정영길 정영숙 정영주 정옥선 정와연 정완희 정용국 정우련 정원도 정유경
정윤옥 정은경 정은수 정이현 정인섭 정일관 정재은 정종화 정지아 정지우 정지원 정지윤 정지은 정지창 정 진 정진혁 정창근 정철훈 정하선 정현옥 정현우
정혜주 정호승 정홍수 정홍교 정희성 조광태 조달곤 조덕자 조동길 조동범 조 명 조명숙 조문경 조미녀 조삼현 조선희 조성래 조성순(시) 조성순(평론)
조수경 조 숙 조숙향 조영옥 조영욱 조용미 조은덕 조인선 조재도 조재형 조 정 조정애 조정인 조정환 조진태 저칭구 조태봉 조태진 조해일 조해진 조향미
조현숙 조혜경 종정순 주명숙 주석희 주선미 주영선 주영헌 지성찬 지창영 진 란 진보경 진순분 진연주 진은영 진준섭 차영호 차옥혜 차창룡 채길순 채명룡
채상근 채인숙 채정은 채지원 채향옥 채현선 천수호 천양희 천재강 천희순 최강민 최광임 최교진 최기순 최기우 최기종 최동현 최두석 최명진 최미정 최백규
최병해 최상해 최석기 최 선 최성수 최세라 최수철 최승린 최승필 최승익 최승필 최연식 최영욱 최영욱 최예원 최예지 최원식 최유성 최은미 최은숙 최은희
최인석 최일남 최장락 최정례 최종득 최지애 최진석 최진영 최창근 최태랑 최필남 최현규 최현우 최형미 최형심 최형태 탁명주 태기수 태재명 표명희 표문순
표성배 피재현 하 린 하명희 하병연 허봉채 허성란 허재연 허재영 한경용 한광현 한기옥 한만수 한병준 한상순 한상준 한성희 한순영 한승헌 한영수 한용국
한창훈 한희정 함돈균 함민복 함순례 허광봉 허 연 허영선 허영옥 허은실 허은희 허의행 허장무 허정분 허종열 홍경희 홍관희 홍기돈 홍명진 홍미자 홍사성
홍새라 홍성란 홍순영 홍양순 홍용희 홍은택 홍인기 홍일선 홍철기 황경란 황구하 황국명 황규관 황상순 황선열 황성규 황성일 황시운 황연진 황영진 황은덕
황은주 황인산 황인숙 황인찬 황재학 황정숙 황종권 황주경 황지영 황현산 황현진 황희수 휘 민 (1,202명)

2018년 제 7 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

숲사랑 · 생명존중 · 녹색환경보전 · 정서녹화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에서는
숲사랑 · 생명존중 · 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녹색문학상을 제정 ·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제7회 녹색문학상 수상 후보 작품집 · 단행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시상인원/상금: 1명/3천만원
- 문학장르: 시, 시조, 동시, 소설, 동화, 희곡, 수필
- 작품주제: 숲사랑 · 생명존중 · 녹색환경보전 · 정서녹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
- 응모방법: 자천 또는 타천의 방법에 의함
  - 작가 본인
  - 등록된 문학단체의 장, 등록된 출판사의 대표자
  - 문학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 대학의 총장 · 학장 · 전공교수
  - 국민 추천(일반국민)
- 추천요령: 추천서(1부)를 작성하여 추천 작품집 · 단행본을 동봉하여 우편 등으로 추천
  * 추천서 양식은 (사)한국산림문학회 홈페이지 (http://www.kofola.or.kr) 공지사항 난에서 내려 받음
- 추천작품집 · 단행본: 2015년 7월 1일 이후 2018년 6월 30일 이전에 최초 출간된 작품집 · 단행본을 추천
  * 최초 출간 시기는 추천 작품집 · 단행본에 표기된 초판(1쇄) 발행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타 문학상 수상 여부는 불문
- 접수기간 2018년 5월 1일 ~ 6월 30일(2개월간) *기간내 도착분만 유효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나무병원 2층 (사)한국산림문학회 (우)02455
  * '제7회 녹색문학상 추천서류'라 겉봉에 명기함
  * 접수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녹색문학상운영위원회 사무처
  전화: (02)3293-2004, E-mail : kofola@hanmail.net
- 심사 및 수상자 결정: 예심 · 본심을 거쳐 수상 작품집 · 단행본(수상자) 결정
  * 수상자 결정 당시 생존한 작가이어야 함
- 수상자발표: 2018년 9월 30일 (사)한국산림문학회 홈페이지 (http://kofola.or.kr) 공지사항 난에 공고하고, 수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함

2018년 4월 1일

녹색문학상운영위원회 · (사) 한국산림문학회

녹색문학상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